

영산재의 구조와 설행 및 사상과 인식*

이 성 운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조교수

- I. 서언
- II. 영산재 성립기의 의문 구조
- III. 영산재 변용기의 의례 설행
- IV. 영산재의 내외 사상과 인식
- V. 결어

* 본 논문은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제17회 학술제(불교의례와 법화천태사상, 2021.4.23.)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보완한 논문이다.

<국문초록>

영산재의 구조와 설행 및 사상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영산재를 성립기와 변용기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첫째, ‘영산재’ 성립기의 의문에는, 순수한 법석 의문인 「작법절차」(1496)와 제반문의 <공양문>과 <영산작법>의 두 종류로 나뉘진다. 전자는 도량엄정 이후 5종의 거불이 등장하며 이후 당해 경전을 염송하고 축원을 하며, 후자는 17세기 중엽부터 등장하는 <영산작법>으로 법석 가운데 법화법석의 거불만이 남아 있고, 명칭도 작법절차에서 <영산작법>으로 칭해지고 있다.

둘째, 변용기의 영산재는, 『작법귀감』(1826)에서 볼 수 있듯이 법석보다 공양의식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데, <영산작법>에 시왕각배가 더해진 의식에 ‘영산재’라는 명칭이 부여되고 있다. 의문대로 영산재가 설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국가무형문화재로서의 성격상 문화적인 요소 위주로 설행되어지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영산재에는 중유사상, 공덕사상, 윤회 전생사상, 조선송배사상, 법화경 경중왕사상 등 법화경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 도량이나 시련에 대한 이해가 다르고, 영산재가 법석의 경전염송이 중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경우도 잘 찾아지지 않으며, 영산재가 사십구재 의식이라는 사실조차 역사 속에서나 증언되고 있다고 보인다.

핵심어: 영산재, 작법절차, 영산작법, 작법귀감, 석문의범, 시왕각배, 칠칠재

I. 서언

한국불교 의례 가운데 영산재와 대비되는 수륙재가 성립 등의 역사와 의문 등이 분명함과 달리 영산재는 의문과 명칭이나 성격에서 수륙재와 그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불교의례에서 의례의 명칭과 목적은 ‘대회소(大會疏)’에 드러난다. 영산재 대회소¹⁾에는 ‘천지명양수륙대도량’ ‘수륙회’ 등 5회나 ‘수륙회’라고 의례명칭이 나타나고 있다. 대회소에 의하면 영산재는 수륙재의 한 부분으로 설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륙재는 영산재의 일부 의식에 해당되는 것이지 따로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행하는 불교의식이 아니다”²⁾라는 견해 등이 제기되었다. 영산재가 수륙재의 하위 의례가 아닌 다른 의례라는 인식은 『천지명양수륙재의범음산보집』 <주시련론>의 “蓋水陸說辦之中靈山乃是別作法也”를 바탕으로 하고³⁾ 있다. 어쨌든 영산재는 수륙재의 한 의례인지, 수륙재가 하위 의례인지 등은 구조와 설행양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동안 영산재에 대한 설행연구는 작게는 6개 부분,⁴⁾ 크게 두 부분으로⁵⁾ 진행되었다. 영산재에 성립과 성격에 대한 연구에는 심효섭의 「조선전기 영산재 연구」(2005)나 고상현의 「영산재의 성립과 전개 고찰」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⁶⁾ 논자는 영산재에 관해 「영산재와 수륙재

1) 영산재의 대회소는 『석문의범』상권(118~120)과 『영산재』(2003, 238~239)에서 확인되며, 이전 18세기 『범음산보집』 등의 자료에는 ‘대회소’라는 협주만 있을 뿐 그 소문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 상기 자료는 『천지명양수륙잡문』(KR1, 553~554) 소수 대회소와 일치한다.

2)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2013), 성명서.

3) 심상현(2011), 41.

4) 고상현(2016), 181.

5) 심효섭(2004), 3.

6) 고상현(2016), 181~182. 주5~11.

의 성격과 관계 탐색』(2015)에서 영산재와 수록재의 성격을 경전독송의 상구보리적인 측면과 시식이라는 하화중생적인 측면이라고 보았으며, 「영산재의 독립과 변용의 모범 탐색」(2020)에서 영산재가 수록재의 법석에서 독립되는 모습과 괘불이운과 설주이운이 분리되는 과정을 고찰하였고, 동시에 문화재로서의 영산재와는 달리 종교의식으로서의 영산재로서의 본래 목적인 법화경 독송의 법석이 행해져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 글은 그간의 선행연구 등에서 별로 다뤄지지 않은 영산재의 구조와 설행, 영산재 내외에 담긴 사상과 그것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몇 가지를 전제하겠다. 첫째, 영산재를 성립기와 변용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영산재 성립기라고 하면 영산재라는 의례 명칭이 등장하는 시기가 언제인지 확인해야 하며, 또 영산재와 유사한 작법, 영산대회, 영산작법, 영산회 등의 명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밝혀져야 한다. 영산재의 성격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 해서 이 글에서는 ‘영산재’라는 분명한 이름을 달고 있는 근대 이후의 영산재 의문이나 설행을 변용기라고 보고, 그 이전의 영산작법절차 등을 넓게 성립기라고 편의상 분류하려고 한다. 이렇게 분류하면 변용기의 ‘영산재’는 『석문의법』(1935) 소수 ‘영산재’와 현대에 설행되고 있는 ‘영산재’에 한정되게 된다. 성립기의 의문은 1496년 『진언권공』과 합편된 <작법절차>의 그것을 필두로 제방사찰에서 간행된 『제반문』(『청문』⁷⁾)의 <공양문>, 『영산대회작법절차』(1634)와 17세기 중반과

7) 『제반문』에는 1529년 최민 필사 『청문』이 비교적 선행본인데, 1540년 덕주사 제반문, 1565년 보림사 제반문, 1566년 보원사 제반문 등 16세기 『제반문』에는 <공양문>이 실려 있다. 이는 영산재 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제반문의 현황을 보면, 『한국의례자료총서』에는 1573년 보현사 『권공제반문』, 1694년 금산사 『제반문』, 1719년 해인사 『제반집』 등이 있고, 동국대불교학술원의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신집성문헌에도 30여 본의 『제반문』이 실려 있다.

https://kabc.dongguk.edu/content/list?itemId=ABC_NC

18세기 초반의 ‘범음집’이라고 명칭 되는 의문의 유형에 실린 <영산작법> 등으로 규정지을 수 있다. 물론 그 사이의 『작법귀감』·『요집』 등에도 영산작법은 실려 있어 참고 될 수 있다.

둘째, 논의의 방법이다. 영산재 관련 역사자료를 근거로 구조와 사상, 인식 등을 읽을 것이다. 한국불교의례자료들은 의문중심으로 전해져 왔다. 중국불교의례자료가 보여주는 의궤적인 부분이 매우 적다. 그것은 현대로 올수록 더욱 심해진다. 왜 그것을 하는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지 않고 있다. 이 글의 문제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산재가 수록재와 다른 것이라면 왜 영산재의 ‘대회소’에서 수록재의 대회소를 사용하며 수록재라고 밝히고 있는지를 설명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보다 부분을 전부라고 주장하는 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해서 영산재의 시기분류의 바탕 위에서 영산재 성립기의 관련 의문의 구조, 영산재 변용기의 의례 실행, 그리고 영산재에 담긴 사상과 영산재에 대한 인식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Ⅱ. 영산재 성립기의 의문 구조

1. 영산재의 성립 약속

영산재는 법석 가운데 법화법석이 영산작법으로 발전되었다는 견해는 의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심효섭의 견해는 의미 있다. “백련사에 의해 개최된 보현도량이 영산재의 시원적 형태이고, 여말선초의 법화법석으로 전개되었다가 조선전기 수록재와 기신재의 실행 양식으로 정착되었다면 계환해는 보현도량의 활성화와 공덕 신앙의 성행을 유도함으로써 영산재가 태동하는 배경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다.”⁸⁾ 논자 또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하였다. “<법화삼매참

법석>이 『법화참의』로 행해졌는지, 『법화경』 염송으로 진행되었는지, <화엄삼매참법석>의 의문이 무엇인지를 추측하기는 어렵다. 단지 당시에 간행된 불서나 책권 등을 참조해 볼 때⁹⁾ <참경법석>은 『자비도량참법』 10권, <법화삼매참법석>은 『법화참의』보다 『법화경』 독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천지명양수록재의범음산보집』(1721, 이하 『범음산보집』) 2일차에 ‘의문대로 <화엄작법>을 하고, 한 쪽에서는 <예참작법>을 의문대로 한다. 이후 명발·할향 등은 『영산대회작법절차』의 차서로 헌좌·다게·향화계송을 하고, 이후 대중은 연화경을 독송한다.’¹⁰⁾라고 하는 예문의 제시를 볼 때 <법화예참법석>은 『법화경』 염송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법석 가운데 <법화법석>은 『법화경』을 염송하는 법석으로 영산회상을 구현하는 <영산법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¹⁾ 영산재가 법화법석에서 발전하였다면 왜 여타의 법석 가운데 법화법석이 영산재로 발전하였는지가 해명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민순의는 “법화경의 영혼 천도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된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¹²⁾ 의미 있는 해명을 제시했다. 심효섭과 민순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자료는 멀리 있지 않다. 법석의례라고 할 수 있는 작법절차의 거불이 그것이다. 조선 초 1420년 칠칠재의 법석이 폐지되었지만 법석의례의 자료인 <작법절차>(1496)나 『영산대회작법절차』(1634)는 간행되었다. 거기에는 법석의 시작을 알리는 5종의 거불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17세기 중반의 『오종범음집』, 18세기 초반의 『범음삼보집』, 『산보범음집』 등에 이르면 여타의 거불은 사라지고 오직 ‘법화거불’만 남게 된다. 15세기 말의 <작법절차>

8) 沈曉燮(2004), 46.

9) 김두중, 173~175; 권기중(2004), 373.

10) 智還 集, 『범음산보집』, 508.

11) 이성운(2015), 423~424.

12) 민순의(2006), 105.

계통 의문은 17세기 중엽 『영산대회작법절차』(표제 『공양문』)로 이어졌다. 하지만 이것이 19세기 초반에 이르면 <삼보통청>으로 압축되면서 법석의례라는 형식은 사라지고 공양의례의 모습으로 변모된다. 그 결과 영산재의 원형 작법이 새롭게 필요하게 되었다고 보이며, 20세기 초반 『석문의범』에는 <삼보통청>과 <영산재>의문이 함께 실리게 되었다. 현재의 영산재가 정착되는 데 무려 400여 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을 알게 해주는 것이다. 현재의 영산재 성립이 18세기 후반이며, 영산재는 안진호의 『석문의범』에서 처음 비롯되었다는 이영숙의 주장¹³⁾에 대해 심효섭은 18세기 초반 『범음산보집』 <운수단작법>의 “齋前如上靈山齋後鳴鈸喝香”¹⁴⁾을 근거로 18세기 전반에 “영산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영숙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¹⁵⁾ 하지만 심효섭이 주장하는 이 협주는 ‘영산재’라고 읽어서는 안 되고, ‘재전에는 영산작법을 하고 재후에는 명발·할향을 시작으로 대례왕공의 재후의례를 시작하라’는 지문이다. 여기서 영산작법은 오전의 영산재인 것은 분명하고, 영산재가 이미 성립되어 있음을 내포한다. 해서 영산작법이 영산재라고 하면 법화법석이 영산재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을 명분은 사실 없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명칭의 문제이지 영산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하는 논의는 무의미하다. 다만 17세기 이전에는 영산작법이라는 명칭조차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15세기 말의 작법절차나 16세 중반 간행된 『제반문』 계통의 <공양문>의식은 영산재는 고사하고 영산이라는 명칭조차 쓰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의 의문이 법화법석 만을 위한 작법절차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법화·화엄·참경·미타참·지장경 등 5종(혹

13) 이영숙(2003), 77.

14) 『범음산보집』(1721), 478중.

15) 심효섭(2004), 13.

은 6종)의 법석을 열 때 공히 행하는 거불 이전의 의식을 통칭하여 현재 영산재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16세기까지의 <작법절차> 의문에 따르면 영산재는 성립될 수 없게 된다. 영산재 성립을 언급할 때, 왜 17세기 중엽 이후 18세기 이후라고 할 수 있는가가 여기서 설명될 수 있다. 영산재는 법화법석을 위한 절차만이 등장할 때 지칭될 수 있는 문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세기 중반 이후 나타나는 의문의 거불에 법화법석의 거불만이 등장하며 그 명칭도 영산작법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해서 영산작법의 역사는 법석의 거불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하겠다. 다시 정리하면 법화법석의 작법절차를 영산작법이라고 지칭한다는 것이다. 물론 위에서 언급했지만 법화법석의 법석이 시작되면서부터 영산작법이 있었다고 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영산재의 시원을 소동파가 만든 것이라든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찬술되었다고 이해하면¹⁶⁾ 영산재는 한국불교 고유의 불교의례라는 독창성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된다는¹⁷⁾ 지적도 부정할 수 없다. 영산재와 영산법석을 혼동하면 영산재의 성립에 대한 이해조차 나뉘질 수 있다.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의 의식은, “타종 및 시련, 대령, 관육, 괘불이운, 건회소, 법어, 식당작법의 1부; 영산단 의식의 2부; 운수상단의 중위명부공양의식과 시식 및 회향의 3부”로 진행되고 있다.¹⁸⁾ 이 영산재 의식을 편의상 변용의 영산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연유는 현재 대부분의 영산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해서 『작법귀감』(1826)이나 그 앞 시대의 그것들과는 적잖은 차이가 있다. 어쩔 수 없이 이 글말에서 현재의 영산재 의식으로 변천되어 활용되기 이전까지를 성립기라고 광범위하게 설정한 까닭이다. 성립기의 영산재

16) 심상현(2011), 35~41.

17) 고상현(2016), 183.

18) (사)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2019), 10.

는 다시 영산작법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영산작법이 출현하기 시작하는 17세기 중반 이전은 법화법석이라고 지칭되어야 하고, 법화법석이 법석의 중심이 된 17세기 중반 이후를 영산작법이라고 할 수 있게 된다. 더 부연할 수 있는 것은 19세기에 이르면 삼보통칭으로 축조되어 법석의 의미가 공양의식으로 한정되면서 영산작법의 원형적인 모습이 요청되었고 그 결과 변용기의 영산재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것이다.

2. 의문의 구조

영산재가 법화법석에서 발전하였다는 전제를 수용하고 영산재의 구조를 보려면 법화법석의 구조를 먼저 일별해야 한다. 경전을 염송하는 법석의 하나인 법화법석이 칠칠재 기간 중에 설행되는 사례로 볼 때 그 목적은 분명해진다. 다시 말하면 법화법석이 발전한 영산재는 왕생극락과 이고득락의 목적 달성을 위해 개설된 칠칠재의 법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제는 그간의 영산재 이해와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 (사)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 자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는 도량을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라고 하며, 이를 통해 “살아 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 함께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¹⁹⁾고 부연하고 있다. 정확한 설명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든다.²⁰⁾ 법석은 경전을 독송하거나 참법을 실천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공양’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실제로 영산재에서 법문은 하지만

19) (사)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2019), 10.

20) 이성운(2020), 72.

법화경 독송을 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와 같은 이해로 볼 때 영산재는 법석이라고 단순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해서 먼저 법화법석과 같은 법석의 의문에서 보이는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17세기 중반 이전), 다음은 영산작법의 의문 구조를 살펴보겠다. 작법절차와 영산작법의 구조는 순수한 법화법석 의례로 나타나는 이후(17세기 중반 이후)의 의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경계에 나타나는 의문이 『오종범음집』(1661)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경계로 삼으려고 한다. 물론 유사한 시기의 『청문』(대흥사, 1662)의 경우는 17세기 중반이라고 하지만 법화법석을 포함해 여타의 법석이 나타나고 있으며 영산작법이라는 지칭이 보이지 않는다.

1) 작법절차의 구조

의례 관련 논문에서 ‘작법절차’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는 문자 그대로 ‘작법의 절차’라는 의미이고, 둘째는 「작법절차」(1496)라는 의례자료를 지칭한다. 꺾쇠 표시하지 않은 작법절차는 작법절차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게 된다. 영산작법 또한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작법절차」의 작법절차를 필두로 제반문 등에 실린 작법절차들은 대개 <공양문>이라는 의례 명칭을 달고 있는데, 작법절차의 구조에서는 위에서 경계하였듯이 법화법석뿐만 아니라 여타의 법석의 절차들을 안고 있는 절차를 중심으로 그 차례를 제시하고 그것들의 특징을 다뤄볼까 한다. 다음 <표 1>은 「작법절차」의 차례²¹⁾인데, 오늘날의 영산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이지만 자세히 보면 적지 않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첫째, 5종의 거불과 염향의식 이후 회주가 경전의 제목을 풀고 경전을 염송하고 나서 삼보를 청하는 소청의식이 이어진다. 5종의 거불이 등장하는 작법절차 계통이라고 하지만 『영산작법절

21) 이성운(2020), 77.

차』(1634)에는 염송 이후 예경을 하고 축원을 하고 있는 점이 다르다. 둘째, 후대 변용기의 영산재 절차와 다른 것은 청불(請佛) 순서라고 할 수 있다. 『석문의범』(1935)에 의하면 거불 이후 청사와 삼례 사부청을 한 다음 헌좌와 예경을 하고 공양을 올린 다음에 청법과 설법이 행해진다. 이와 같은 점들로 말미암아 영산재의 성립기와 변용기가 변별된다고 하겠다. 셋째, 『작법절차』에서 제목을 해석하는 법사나 경전을 염송할 때 경전의 설주를 청하는 의식이 별도로 있지 않고 거불의 소례들이 소청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영산재나 법화법석이 법화경의 설주인 영산의 석가모니붓다를 청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을 청해 모시는 의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점을 해명해야 한다. 17세기 이후 영산작법과 17세기 이전의 작법절차에서는 보기 힘든 장면이다. 영산작법에 근접한 『금산사제반문』(1694)에는 청사 이후에 ‘영산지심’이라고 하여 “지심예청 영산회상 염화시중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월강도량 수차공양”이라고 하며 석가모니붓다를 청하고, 삼례와 사부를 청하는 <거영산작법절차>²²⁾가 제시되고 있다. 18세기 초의 『보현사산보범음집』에는 거불 이후에 영산의 석가모니붓다에 예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²³⁾ 청불 이전의 모습임을 말할 것도 없다.

22) 『금산사제반문』(KR2), 480.

23) 『보현사제반문』(KR2), 586~587.

<표 1> 「작법절차」(1496)의 차례

<p>작법절차</p> <p>할향/연향계, 할촉/연등계, 할화/서찬계</p> <p>삼귀의 '삼지심례'</p> <p>개계문</p> <p>관음청 "향화청" 등장, 삼청 후 쇄수계</p> <p>誦千手 周回道場 灑水後 入法堂</p> <p>쇄수계/ 엄정계</p> <p>次 擧佛 법화즉 '5종 거불 등장'</p> <p>화엄즉/ 참경즉/ 미타참즉/ 지장경즉</p> <p>次 拈香</p> <p>개경계</p> <p>次 會主 釋題 次 同誦</p> <p>次 請佛 覺照圓明 ~ 利濟群品</p> <p>一心禮請 ~ 불타야중, [和云] 유원자비 광림법회 달마야중~, 승가야중~</p> <p>삼계사부~ 일체성중 [和云] 유원자비 광림법회</p> <p>次 헌좌/ 진언</p> <p>次 獻奠物 次 鳴鈸 次 讀疏</p> <p>향수나열 시주건성 ~ 특사가지</p> <p>나무시방불법승</p> <p>변식진언/ 감로수진언/ 일자수륜관진언/ 유해진언</p> <p>次 六法供養</p> <p>香花頌云</p> <p>願我一身~ 공양시방제불타/ 달마/ 승가</p> <p>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p> <p>次 송심경, 次 요잡, 次 자삼귀의</p> <p>次 명발 次 축원 후</p> <p>환희장마니보적불 원만장보살마하살 회향장보살마하살</p> <p>齋前齋後 初夜後夜 通用別例 香花供養一切恭敬</p>

「작법절차」만의 의례를 놓고 보면 거불은 칭명으로 소청하여 예경하는 의례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는 경전 염송 이전과 이후의 의례에

서 경전을 설해주는 당해 설주를 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전을 염송하는 법석’에서 경전을 염송하는 조건은 대개 설주의 내림을 청한다. 경전 염송 절차를 제시하는 대표적인 계청법식에는 <금강경계청>이나 <오대진언계청>²⁴⁾이 있다. 현재 한국불교에서 송주의식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육경합부』(1420) 등에는 정구업진언, 청8금강 4보살, 발원문, 운하범이 제시되고 있으며, 간경도감 간행 『금강경』(1464)에는 정구업진언 안토지진언, 보공양진언, 청8금강4보살, 발원문, 운하범, 개경계로 시작된다. 여기서 안토지진언이 봉안의 소청진언과 같은 형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해서 보공양진언을 병행한다. 경전을 염송하는 법석이라고 할 때 경전의 설주를 청하는 것은 당연한데, 「작법절차」에서는 특정 경전이 지칭되는 것이 아니라 경전 염송 이후 삼보를 청하고 사부를 청해 공양의식을 옹호하기를 부탁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다양한 법석의 의례절차라고 할 수 있는 「작법절차」(1496)의 형식은 16세기 내지 17세기 제반문 유형의 의문에 그대로 전승되다가 17세기 이후에 영산대회, 영산작법이라는 명칭과 더불어 영산재로 성립되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2) 영산작법의 구조

영산대회라는 명칭이 처음 쓰인 자료로는 『영산대회작법절차』이다. 1613년 안심사 본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부득불 1634년 용복사 본을 논의의 중심에 놓을 수밖에 없다. 1652년 서문이 쓰이고 1661년에 간행된 『오종범음집』은 ‘오종범음집’이라는 명칭처럼 다섯 종의 범음으로 행하는 의례 의문을 집성하고 있다. 17세기 이후 법화법석이 영산작법으로 지칭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물론 그 이전에 ‘영산회탱’이라는 명칭이 있었고, 사명준식(964~1032)이 영산법석을 거행하였다고

24) 『오대진언집』(KR1), 137~185.

하지만 그것이 한국불교의 영산작법과 같은 의례라고 하기는 힘들다. 해서 영산재 성립의 단초를 확인해 나가는 이 글의 성격상 논외로 하고, 17세기 중반 이후 한국불교에 등장하는 <영산작법>의 구조를 살펴보겠다. 기준 의문은 『오종범음집』²⁵⁾의 차서이다.

<표 2> 『오종범음집』의 영산작법 절차

명발, 찬불계, 불개안찬, 강생계, 입산계, 출산계, 염화계(행보계), 영산회상불보살, 등상계 [괘불이운의식] 할향찬 · 연향계, 할등 · 연등계, 화찬 · 화계(서찬계) 삼귀의 합장계, 고향계, 개계, 관음찬, 관음청사 · 향화청, 가영, 걸수찬계, 복청계, 천수운운, 사방쇄수, 사방찬, 엄정계(도량찬) [거불] 나무 영산교주 석가모니불 증청묘법 다보여래; 극락도사 아미타불; 문수보현대보살; 나무 관음세지대보살; 영산회상불보살 [단불청법식] 헌좌계주, 다계 청불 각조원명~, 삼례청, 사부청 예경, 향화계 · 향화운심계, 공양의식 정대계, 개경계, 청법계, 일광계(천태친설), 회주 설법. 대중송정설방편품 , 수경계 예경(사무량계) 선왕선후선가 왕생극락발원 지심귀명례 석가모니불 進供儀式(정법계진언 사다라니 가지권공, 육법공양) 보공양진언, 보회향진언, 축원, 삼자귀의,

『오종범음집』(1661) 의문에서부터 현재의 괘불이운, 혹은 설주이운의 형식과 절차가 의문에 편입되고 있다. 의문에는 관련된 설명은 없으나 괘불이 있으면 4보살 8금강에 위호를 청하고 괘불탱을 설치하고

25) 智禪 撰(1661), 157~162.

의례를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협주가 등장한다. 17세기 괘불이 법석의례에 활용되고 있음을 설명해주는 사례이다. 작법을 시작하는 것이 옳다는 협주는 이제 그와 같은 의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영산작법의 형식은 삼각산 중흥사 『범음산보집』(1721)이나 『보현산보범음집』(1713)에도 영산작법이라고 시설되어 있다. 그것들과의 차이를 살펴보자. 『산보범음집』(1713)에는 영산작법 이전에 보청의식, 회주증사영인의, 대소단법격금의식, 습례의, 분수예식, 법사이운의가 시설되었다. 『범음산보집』(1721)에는 대령의, 분수작법, 불사리이운, 고승사리이운, 전패이운, 금은전이운, 시주이운, 경함이운, 괘불이운, 설주이운 의문에 설재의, 보청의, 배운차비규, 괘불배운규, 경함배운식, 설주입좌식, 경종품예식 등이 제시되어 있다. 아울러 개건대회소가 유행되고 있으나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것은 시대가 흐를수록 의례가 제대로 전승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범음산보집』(1721)은 거불 이후 대청불을 하고 삼례와 사부청이 이어지고 현좌계주 이후 차를 올리고 향화계 이후에 설법을 한다. 『산보범음집』(1713)은 5거불과 삼례청 사이에,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석가모니붓다의 예경과 청을 하고 아울러 관육의식도 추가되고 있다. 이하는 영산작법의 차서가 유사하게 진행된다.

그렇다면 「작법절차」와의 대표적인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첫째, 경전 해석이나 염송의례가 삼례 사부청 이후에 향화운심공양 이후에 행해지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둘째, 현좌계주(獻座偈呪)의 대상이 삼례[보]에서 거불의 소리 불보살로 달라졌다. 「작법절차」에서는 삼례의 공양을 사다라니로 변식하고 육법공양하고 향화공양하고 있지만 영산작법에서는 향화공양을 먼저 하고 난 다음 축원 이후에 사다라니 변공과 가지권공, 육법공양을 하고 있다. 이 점은 「작법절차」 계통이라

고 할 수 있는 『영산대회작법절차』 형식과 같다. 영산작법은 당연히 법화경 염송의 법석이 특화된 것이다 보니 ‘법화경방편품’이라고 염송 경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셋째, 「작법절차」의 축원에는 선왕선후 극락왕생이 보이지 않고 있으나 영산작법에는 선왕선후를 위한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아마도 「작법절차」 당시는 당연한 것이라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16세기 이후 공식적으로 국가제례에서 수록재나 기신재 등이 폐지되었다고 하나 불교에서 여전히 삼전축원을 봉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

Ⅲ. 영산재 변용기의 의례 설정

영산재의 성립기를 작법절차와 영산작법이라고 설정하다 보니 변용기의 영산재 의문은 극히 제한적이다. 20세기 초반 『석문의문』(1935) 소수 <영산재>가 그 처음을 장엄하고, 근대의 영산재 의문에 국한되어 불과 1세기 안팎의 기간에 나온 자료들에 그친다. 결국 현대의 영산재 의문을 ‘변용기의 의문’이라고 지칭하게 되었다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문의범』의 그것이나 현대의 그것들을 대조하여 비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석문의범』 소수 <영산재>와 현대의 영산재 의문 간에도 적잖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해서 이 장에서는 의문의 비교가 아닌 의례의 실행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논의해 보려고 한다. 물론 『석문의범』 소수 <영산재>, 전북불교연합회의 『영산의문』(1988)²⁶⁾,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봉원사 영산재의 실행 자료라고 할 수 있는 『영산재』(2003)²⁷⁾ 등을 통해 실행과의

26) 덕운 편수·일웅 교정(1988).

27) 심상현(2003).

관계를 중심으로 설행의 특징과 영산재에 대한 제반 인식을 살펴보자.

1. 영산재 설행 의문

봉원사 영산재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로 지정되었고 내포영산재, 불모산영산재, 부산영산재, 전북영산재, 광주영산재 등이 지방무형문

<표 3> 변용기 영산재 의문의 주요 설행 차서

『영산의문』의 목차	『영산재』의 진행과정
시련(侍輦)	1. 시련(侍輦)
대령(對靈)	2. 재대령(齋對靈)
관욕(灌浴)	3. 관욕(灌浴)
괘불이운(掛佛移運)	4. 조전점안(造錢點眼)
건회소	5. 신중작법(神衆作法)
상주권공(常住勸供)	6. 괘불이운(掛佛移運)
唱魂	7. 영산작법(靈山作法)
懺悔偈	8. 식당작법(食堂作法)
舉揚	9. 중단권공(中壇勸供)
영산(靈山)	10. 관음시식(觀音施食)
대직찬	11. 봉송의식(奉送儀式)
~	
육법공양	
식당작법(食堂作法)	
각배(各拜)	
상단소	
중위	
시왕소	
시왕도청/ 시왕각청	
화청	
관음시식	
삼단도배송	

화재로 지정되어 있다.²⁸⁾ 부산영산재나 불모산영산재를 제하고는 대부분 서울의 봉원사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에서 파생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영산재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고 있지 경제소리, 인천수륙재, 제주불교의식 등도 서울의 봉원사 영산재에서 이수한 이들에 의해 설행되는 의례라고 알려져 있다.²⁹⁾ 그런 까닭에 서울의 영산재를 대표적인 변용기의 영산재라고 할 수 있다. 먼저 영산재의 설행 현황을 개괄하기 위해 『영산의문』(1988)의 목차와 『영산재』(2003)의 진행절차를 <표 3>으로 정리하고, 설행의 특징을 살펴보자. 『영산의문』(1988)의 차서는 편익상 목차를 전부를 자세히 기재한 것은 들여쓰기 방식 등으로 하부 의례에 대한 인식을 보기 위해서이다.

『영산재』(2003)의 진행과정과 『영산의문』(1988)의 목차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차이는 『영산재』(2003)에는 조전점안이 있는 점이고, 『영산의문』(1988)에는 <상주권공>이 있지만 신중작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정도이다. 또 작은 차이로는 ‘대령’과 ‘재대령’의 차이가 있다. 이 점은 다음 항목에서 언급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두 절차와 『석문의범』 소수 영산재의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석문의범』 소수³⁰⁾ 의례에는 괘불이운의식은 제시하지만 대령이나 관육의례는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영산재』(2003)의 중단은 『석문의범』이나 『영산의문』(1988)의 각배라고 할 수 있는데, 『석문의범』에는 <제이. 영산각배>라고 하며 영산과 각배를 대등한 자리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영산과 각배를 대등한 자리에 위치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이. 영산각배> 앞에는 <제일. 상주권공>을 제시하여 <영산각배>와 <상주권공>이 대등한 의례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더 나아가

28) 홍태한(2018), 150~151.

29) 서정매(2017), 66.

30) 안진호 편(1935), 『석문의범』상권(만상회), 110~150.

『석문의범』은 영산과 각배도 대등한 의례적 위치를 제시하고 있는데, 해서 상주권공·영산·각배가 설법을 위한 대등한 의식으로 제시된 점이 독특하다. <상주권공>도 도량엄정을 마치고 참회계를 운운한 다음 정대계와 개경계 청법과 설법의 계송을 시설하여 설법의식임을 밝히고 있다. 영산재가 경전을 염송하는 법석 의식이라는 것이 분명하지만 『석문의범』에 이르면 영산작법뿐만 아니라 <상주권공>과 <각배>의식까지도 설법의식으로 이해되어 확장되고 있음³¹⁾ 볼 수 있다. 『영산의문』(1988)은 『석문의범』(1935)에서 영산 앞에서 첫째 설법의식으로 제시한 <상주권공>을 『영산의문』 내부에 편입하는 대신 영산에서 설법의식을 삭제하고 있다. <상주권공>의식은 할향·등계로 변재 삼보에게 의례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알린다. 삼정례를 마치고 이어 창훈(唱魂)으로 사실상 대령을 해놓는다. 도량을 정확한 다음 설법을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간략한 법석의식으로 설법을 하여 혼령을 깨닫게 하는 의식으로 거양의식으로 알려져 있다. 대체적인 의례의 진행이라고 할 수 있다.

저간의 사정이나 영산재 변용기의 의문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산재는 법화경 염송법석[영산작법]에 칠칠재의 재공의식인 시왕각배 의식이 더해진 의례라고 할 수 있다.

2. 영산재 설행 양상

그렇다면 『영산재』(2003)에서 제시된 대로 실제 영산재가 설행되고 있을까. 이것을 확인하려면 영산재 설행 현장을 살펴봐야 한다. 논자는 2019년 6월 6일 서울의 신촌 봉원사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가 설행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31) 『석문의범』상권(1935), <상주권공>, 109; <영산>, 124~125; <각배>, 134.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대제”를 참관하였다. 당시 설행 양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당일 영산제는 오전 10시에서 시작해 18시까지 진행되었다. 오전 10시 타종과 홍고 명고를 시작으로 시련을 위해 시련터로 나아가면서 시작되었다. 일반적으로 시련이나 대령은 해탈문 밖에서 시작하지만 봉원사 구조 상 부도전에 시련터가 마련된다. 이곳에서 옹호계를 시작으로 옹호를 위해 초청한 신중제위에게 헌좌하고 차를 올리며 바라와 작법무로 공양한 다음 위패를 모시고 특설 무대로 이동한다. 이렇게 옮겨가는 과정을 시련이라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영산제에서는 불보살 및 옹호를 청하는 성현종과 영가들을 모셔온다고 하고 있다. 내용 상으로 볼 때는 혼령을 모셔오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시련의식에서 영산제 보유자 김인식(구해) 및 전수교육조교 마명찬(일운)·이수길(기봉)·한희자(동희)의 3인과 최학성(원호)·조동환(인각) 등의 원로 이수자들을 비롯해 한정미(해사)·김민정(동환)·권리한(수범) 등 중진 이수자, 전수생들이 참여해 장엄한 범패성과 다계작법무 복청계 천수바라무를 선보였다. 전체 시련의식은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재대령은 설판재자의 혼령을 맞이하는 대령은 영산제 보유자 김인식(구해)의 거불 짓소리로 시작되었다. 나 아 이에 우 오 하는 대령 거불 첫소리는 “나무극락도사야미타불”을 장장 6분에 걸쳐 소리를 지었고, 원허·기봉·일운·해사 등이 대령거불을 하였다. 본 대령은 전수교육조교 이수길(기봉)이 집전하고, 전수생 안지훈(도안)이 바라지하여 진행했다. 대령은 혼령을 불러 이 영산도량에 임해 법공양을 받고 오묘한 진리를 깨치도록 하는 의식이다. 당해 혼령을 부른 다음 고훈을 삼청하게 되는데, 현재에는 당해 혼령과 제주가 없는 고훈을 세 번 반복해서 청하는 삼청으로 봉행

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국혼청·승혼청·고혼청의 삼청이 행해졌다고 보인다. 청해 모신 혼령들을 부처님 등 삼보님께 예를 올리는 의식으로 대령은 마친다. 이 날 대령은 약 37분이 소요되었다.

다음은 혼령들의 업식을 맑히는 관욕의식이었다. 이 날 관욕은, 이날 영산재 도감을 맡은 마명찬(일운) 전수교육조교에 의해 진행되었다. 관욕은 수인법사들이 병풍 밖에서 수인을 하고 관욕실 안에서 관욕이 진행되었는데, 관욕은 1부가 목욕의식이고 2부는 옷을 갈아입히는 착복의식인데, 약 28분이 소요되었다. 관욕실 안의 장면이 공개되지 않았다.

괘불이운의식은 실제 괘불을 옮기는 의식으로 진행되지 않고 괘불을 옮겨 설치해 놓은 곳에서 괘불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형식의 의례문을 소리와 작법으로 진행하였다. 19분 정도 소요되었지만 정식으로 괘불이 있는 곳에서 옮겨 와서 탕화를 걸고 하며 하는 의식으로 행하면 그것보다 훨씬 시간이 더 소요된다.

식당작법은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만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식당작법이 행해지므로 영산작법에 식당작법의 재승의식이 더해져서 영산재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영산재의 식당작법은 1시간 7분 정도 소요되었는데 공양을 나누기 이전과 이후의 긴 의식이 소리와 창·춤 등으로 그 의미가 표현되었다. 실제 음식을 먹는 공양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불가에서 행하는 발우공양의식과 내용은 같지만 각각의 소리와 몸짓은 봉원사 영산재만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재식(점심) 이후에 영산작법, 영산단 의식이 거행되었다. 향·등·화의 공덕 찬탄과 올림의 의미를 찬하는 삼등개의식이나 삼지심례의 의식 가운데 소리를 지어 하는 대·중·소직찬은 주로 전수생

과 이수자들이 행했다. 후학을 양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아직은 덜 익숙한 소리도 있었다고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우수한 범패를 보여주었다. 2시간 16분 정도 영산작법이 소유되었다. 전반적으로 어산단에서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전수생들이 상주삼보를 찬탄하고 관음보살을 청해 도량을 엄정하는 의식으로 법회도량을 완성하고 상주삼보를 청하여 일체예경을 하고 향화게로 운심공양을 올렸다. 이때 향화게작법이 장엄하게 펼쳐졌다. 이후에 영산 법화경 독경이나 설법의식이 행해져야 하지만 사다라니공양을 통해 변식하고 가지 공양한 다음 이연경(도경)의 화청과 권리환(수범)의 축원화청, 시왕권공까지 마치고 관음시식을 하였다.

관음시식은 초청한 훈령들에게 관세음보살이 알려준 변식다라니로 공양을 변식하여 초청한 훈령과 일체의 고훈들에게 법의 음식을 베푸는 것이다. 이 무렵 비 줄기가 심해져 도량 결계 번들은 철거하였지만 스님들은 동요 없이 의식을 진행하고 삼천불전 앞에서 봉송의식을 행하였다. 대령하였으므로 시식을 권한 훈령들을 극락세계로 보내는 것이다. 이동식 소대에서 일부 번과 위패를 소지함으로써 이 날 행사는 종료하였다. 오후 5시 35분경 소대에 소지되는 동안 영산재보존회 회장과 도감 일운의 인사말씀을 끝으로 영산재가 끝났다.

전통 영산재는 3일 영산, 7일 영산 해서 그 기간 동안 행해졌다고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영산재가 6~7시간에 설행되고 있으므로 의문대로 영산재를 다 설행하지 못하는 모습은 도처에서 확인된다.

IV. 영산재의 내외 사상과 그 인식

1. 영산재의 내외 사상

영산재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작법절차」의 법화법석을 설행하게 되는 동기를 보면 일차적으로 영산재의 외형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석을 열게 되는 목적은 조선실록³²⁾ 등에서 전하는 것처럼 경전을 독송하여 왕생극락을 발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경전의 독송으로 얻는 공덕은 무엇인가. 『대방등대집경』은 이렇게 설하고 있다. “선남자여, 만일 이 경전을 듣고 받아 지녀 풍송하고 독송하되 7일간을 지극한 마음으로 잊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일체 악죄가 모두 소멸될 것이며 ~ 단나 바라밀 내지 반야바라밀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³³⁾ 또 『범망경』에서는 “부모 형제 화상 아사리의 사망일이거나 삼칠일 또는 칠칠일에 응당 대승경율을 독송 강설하여 재회에 복을 구하고 미래의 생을 다스릴 것이다.”³⁴⁾라고 하고 있다. 경전의 독송으로 죄업을 소멸하고 복을 구하고 미래의 생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경율론 모두는 군생(群生)의 미혹(迷惑)을 깨우친 진전(眞詮)이요 함령(含靈)을 제도하는 영궤(令軌)입니다. 혹시 1권을 얻어서 혹은 수지(受持)하여 독송(讀誦)하기도 하고, 혹은 등사(謄寫)하여 선양하기도 하면서, 다만 간절히 기원하여 마음만 기울인다면 그 승인(勝因)과 승과(勝果)는 저절로 유명(幽明)을 널리 이롭게 함이 그렇게 되기를 기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³⁵⁾ 하는 데 의지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법석 등에서 독송되거나 필사 혹은 등사된

32) 『세종실록』 9권, 세종 2년(1420) 9월 24일 기축 7번째기사.

33) 『大方等大集經』(T13), 220上.

34) 『梵網經』(T24), 1008中.

35) 『문종실록』 1권, 1450년 4월 10일 2번째기사.

『법화경』·『범망경』·『기신론』·『능엄경』·『미타경』·『지장경』 가운데 하필이면 『법화경』이 대승경전의 대표적인 경전으로 수용되고 신앙되었을까. 대개의 경전이나 다라니는 당해 경전이나 다라니가 최상승의 법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조선 초 이래 법화신앙이 추천의례의 중심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법화경의 영혼천도 능력에 대한 확신이 생기게 되었고”³⁶⁾ “동양 삼국 불교계에서 가장 널리 읽힌 경전”³⁷⁾인 법화경이 최고의 경전이라는 사상으로 신앙되어 법화경사경과 법화법석이 활발하게 열리게 되었고 이후 영산작법으로 안착해서 재공이 합해져 불교의례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견지에서 설행되는 영산재 내외에 담긴 사상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는 혼령이 칠칠일간 중유(中有)로 존재한다는 중유사상³⁸⁾을 비롯하여 중유에서 다음의 생을 기다리는 영혼에게 선업을 덧붙여서 이것으로 안락한 곳에 태어나게 하는³⁹⁾ 왕생극락사상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선악 업보에 따라 윤회·전생한다는 윤회사상, 조선숭배(祖先崇拜) 사상, 망자를 위해 재를 올리며 그 과보의 칠분의 일은 망자가 받고 칠분의 육은 재를 올린 산 자가 받는다는 공덕사상⁴⁰⁾ 등이 그 밑바탕을 형성하고 있다. 칠칠재 등을 통해 선망조상님들을 위해 작법을 열고 경전을 염송하여 공덕을 쌓아 돌아가신 조선(祖先)이 극락에 태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이다. 만일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소멸되고 만다는 단멸적인 사고를 한다면 유가에서처럼 단순히 정성을 다해 제사를 올리기만 된다. 그렇지만 윤회사상을 수용한 불교적 관점에서는 돌아가신 분들

36) 민순의(2006), 105.

37) 차차석(2010), 2.

38) 『瑜伽師地論』 권1(T30), 281c~282b.

39) 道端良秀(1960), 12.

40) 實叉難陀譯, 『地藏菩薩本願經』(T13), 784b.

을 위해 산 이가 경전을 염송하고 공불재승을 하면 그 공덕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게 된다는 믿음과 사상으로 인해 불교인들은 사후 칠칠재를 올리고 또 법석을 개최하고 경전을 염송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중의 최고 경전이 법화경이라는 신앙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에서 법화경이 설하고 있는 구원성불설이나 개시오입의 일대사인연사상은 일체 중생을 모두 성불하도록 인도한다고 하는 사상이 수용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선 이전 신라나 고려 때 『법화경』은 ‘회삼귀일’ 사상이 더욱 각광 받았을 수 있었겠지만 조선 때는 조선(祖先)의 사후추전을 위한 의례에서는 ‘법화경이 최고 경전’이라는 신앙으로 왕후장상(王侯將相)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널리 신앙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영산재에서 법화경 제목을 풀이하는 석제 의식은 제목의 신성성을 부여하여 신앙심을 고취하였다고 보이며, 그로 인해 법화경은 조선시대 내내 빈번하게 간행되고 사경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법화경 사상은 의례의 축조와 설행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알 수 있다. 청헌 의문에 혼령을 불당 앞으로 모셔와 보례삼보를 하고 ‘還得衣珠: 옷 속의 보배 구슬을 얻었다’고 하며 마음을 내려놓고 자리에 앉으시라⁴¹⁾고 권하고 있는데, 이는 법화경 비유품을 활용하여 의례화한 한 사례이다.

기타 정토신앙과 밀교사상 등이 듬뿍 들어 있지만 그것은 여타의 법석이나 의례에도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을 것이므로 더 논의하지 않는다.

41) 덕운 편수·일응 교정(1988), 7후면.

2. 영산재에 대한 인식

1) 도량의 건립 관련

현재 한국불교에서 도량이라고 하면 대개 사찰을 지칭한다고 이해하는 경향이 짙다. 먼저 법석이라는 의미의 ‘도량’이 어떻게 ‘사찰’로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자.

불교에는 많은 종류의 의식과 행사가 봉행된다. 그 내용에 따라 법회, 도량, 재, 법석, 의례, 참법 등 다양하게 불리고, 법회 등도 그 성격에 따라 화엄법회, 강경법회 등 많은 종류로 분류되고 있다.⁴²⁾ 불교가 국교로 신앙되던 고려 때 나라와 왕실에 의해 개설된 법회와 도량은 83종 1038회이었고, 그 명칭은 법회·도량·설재·법석·대회 등으로 모두가 그 특유의 소의경과 사상으로부터 나왔으며,⁴³⁾ 제종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조선시대에 와서도 선왕선후(先王先后)의 칠칠재와 기신재가 수록재로 봉행되었고, 이변을 없애는 소재도량과 기우재, 비 멧기를 비는 기청재 등이 빈번히 개설되었다.⁴⁴⁾ 이렇듯이 불교의 법회와 도량 명칭이 근자에 이르러서는 사찰을 칭하는 명칭으로 둔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 원인은 여럿 있겠지만 ‘불공’ 또는 ‘불사’라는 명칭에 대한 변천과 인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기 위해 설단을 하고, 그 연유를 밝히는 ‘유치’를 아뢰는데, 유치 해석과정에서 불사도량을 사찰로 확대 해석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⁴⁵⁾

42) 서윤길(2006), 850~851.

43) 서윤길(2006), 548.

44) 서윤길(2006), 822~830.

45) 이성운(2011), 181~182

도량 건립을 위해서 도량의 구역을 정하는 결계와 도량과 참여자들을 정확화하는 엄정의식이 거행된다. 또 괘불, 금은전산 등 도량에 필요한 것들을 옮겨 정확화하고 제 자리에 안치하고, 또 법석의 독송경전을 들을 수 있도록 재자와 추천혼령을 초청하는 것이 도량 건립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소수 두 의문의 ‘대령’과 ‘재대령’의 차이는 무엇이고, 『범음산보집』(1721)의 <시주이운>이 시련의식 의문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에 대한 한국불교인들의 인식은 어떠할까. 『영산재』(2003)에는 “설판재자를 복위로 하는 영가와 유주무주의 모든 영가를 도량으로 영접하는 의식이 「재대령」이”⁴⁶⁾라거나 “대령이란 보통 재대령이라고도 한다.”⁴⁷⁾고 하고 있고 또 “대령은 고훈들에게 간단하게 음식을 베풀고 기다리게 하는 의식”⁴⁸⁾이라고 하는 등 <재대령>과 <대령>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과연 <대령>과 <재대령>은 동의어로 이해해도 무방할까. 『영산재』(2003)에서도 『석문의범』하권의 목차와 차서를 언급하고 있지만 뚜렷한 해답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데, 『석문의범』의 목차와 차서는 이에 대해 어느 정도 답을 주고 있다고 보인다. 논의를 위해 『석문의범』의 해당 목차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4> 『석문의범』하권의 목차는 의식의 진행이 ‘각청·시식·배송’으로 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해 시식(공양)하고 배송한다는 의례 삼단계로 이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실제 본문의 각청에 공양의식을 시설하여 편자의 본래 의도였다고 보이는 청(請)→공(供, 娛神)→송(送)의 구조로 설행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각청에서 공양하고 봉송을 하지 않는 모순적인 부분이 한국불교 의식에 나타나고 있다.⁴⁹⁾

46) 심상현(2003), 150.

47) 법회연구원(2004), 226.

48) 연제영(2014), 144.

49) 이성운(2012a), 160~166.

다시 대령을 보면 <표 4>는 대령에 사명 일대령과 재대령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먼저 사명일은 “正朝、端午、百種、加午”⁵⁰⁾이며 사찰에서 선왕선후와 종실, 승훈, 법계고훈을 청해서 시식을 올리는 날이다. 위전을 하사받은 사찰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사찰의 주지가 재주가 된다. 사명일대령은 선왕선후의 훈령을 모시게 되니 시련절차를 부록으로 설명하라고 『석문의범』의 목차는 설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해 ‘재대령’은 사찰 밖의 재자가 재(물)와 훈령을 모시고 사찰에 당도할 때의 대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관욕을 봉행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17세기 청문 등의 대령에는 관욕절차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까닭은 악업 등 업장 소멸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가의 사고를 수용한 데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표 4> 『석문의범』 부분

六 各請篇
~
七 施食篇
第一 對靈
가 四明日對靈
附 侍輦節次
나 齋對靈
附 灌浴節次
第二 施食
~
第三 靈飯
八 拜送篇

2) 시련의식

다음은 시련(侍輦)의식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시련은 연으로 모신다는 뜻이다. 귀중한 물건이나 사람이라 연으로 모신다고 할 수 있다. 연은 수레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수레 가운데 연은 국왕 등이 타는 연이라고 하여 시련의 대상이 불보살이나 성현이라고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시련의식에 대한 이해는 다양하다. 시련의식에서 문제

50) 사명일을 속가에서는 “설·단오·추석·동지”이고, 불가에서는 “불탄·백종·성도·열반재일”이라는 설명도 있다. 한정섭 역주(1982), 432~433.

가 되는 것은 시련에서 이운할 대상이 누구인가이다. 연제영의 연구에 의하면 시련의 대상에 대한 이해에 대해 선행연구를 검토하니 10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영가, ㉡ 불보살·영가, ㉢ 불보살·옹호성중·영가, ㉣ 불보살·옹호성중·영가, ㉤ 불보살·영가, ㉥ 영가, ㉦ 불보살·영가, ㉧ 옹호성중, ㉨ 영가, ㉩ 불보살·옹호성중”⁵¹⁾인데 동일한 불보살이나 영가라고 하지만 이해가 달라 달리 분류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련의 대상에 대해 이렇게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시련의식의 의문을 보면 당연한데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시련의문이나 절차는 단순하다. “대비주 염송, 옹호계, 헌좌계주, 다계, 행보계, 산화락, 나무대성인로왕보살, 영취계, 보례삼보”이다. 오해가 일어나게 된 것은 아주 간단하다. 옹호계의 내용이 “奉請十方諸賢聖 梵王帝釋四天王 伽藍八部神祇衆 不捨慈悲願降臨”이라고 시방의 제현성과 욕계의 하늘신들과 가람토지신들을 청하고 있으니 그들을 청해 모신다고 이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계송은 제목에서 옹호계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목을 봉청계라고 하지 않고 옹호계⁵²⁾라고 하면서 실제 옹호를 부탁하는 연사가 하나도 없으니 현성을 청해 모신다고 이해하는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을 것 같다.⁵³⁾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의문인데 『범음삼보집』에는 이 의문이 시주이운이라고 분명하게 나오고 시주 집에서 국수 등을 준비해 왔을 때 맞이하는 의식의 의문으로⁵⁴⁾ 나와 있다. 논어의 대상조차 되지 않지만 끊임 없이 주장이 펼쳐지는 것은 영산재회 등에 대한 인식이 달라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51) 연제영(2014), 141~143.

52) 『석문의법』하권(1935), 54; 『범음산보집』(HD11), 464~465.

53) 이성운(2012b), 182~187; 헤일명조(2016).

54) 智還集(1721), 465上.

시련의식은 『석문의범』에서 대령의 부록으로 제시된 시련절차라는 것을 보면 시주이운의 측면보다 당일 재를 올리는 대상인, 대령한 혼령을 시련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시련터에 위패를 들고 나간다. 위패를 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시련터까지 재자가 모시고 온 위패를 시련터에서 인계 받아 연에 싣고 절 안으로 모시고 들어오는 대령의식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연(輦)이나 여(輿) 등에 혼령을 모시고 사찰로 돌아오는 모습은 일찍부터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고려사·열전』의 다음 기사는 알려준다. “매 7일마다 여러 승려들에게 명하여 범패(梵唄)를 부르게 하여 혼여(魂輿)를 따라 빈전(殯殿)에서 사문(寺門)까지 가게 하니 깃발(幡幢)이 길을 덮으며 꿩과리와 북소리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울렸다.”⁵⁶⁾ 매 칠재마다 시련하여 혼령을 사찰로 모셔오고 있는 것이다. 또 시련의 대상 가운데 영산법석의 붓대를 대신 해서 설주를 영산의 상징인 방장에서 입산과 출산의 포퍼먼스를 행하는 <거영산작법절차>를 볼 수도 있다.⁵⁷⁾

결국 시련의 대상은 의문과 행위로 확인할 수 있다. <시련>의 의문에서 현성을 봉청하는 목적은 시련의 대상이 탈 연을 옹호해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청해 권공하는 것이다. 또 대령 상에 국수 등을 올리는 데에 대해서도 여러 설명과 인식이 있다. 혼령을 위한 국수인지 가마꾼 등 의례에 참여하는 수고하는 이들을 위한 국수인지 의견이 분분하다. 그 답은 너무나 단순하다. 수고하는 이들을 위한 국수라고 할 수 있다. 왜인가. 거기에 대해 별도의 의문이 없다. 혼령을 위한 것이라면 변공과 권공의 의례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55) 안지훈(2019).

56) 『高麗史』 卷89, 列傳 第2 后妃,

57) 『금산사제반문』(1694, KR2), 476하.

3) 작법의 변용 부분

영산재의 대회소(大會疏)에서 ‘수륙회’라는 명칭이 5회나 언급되고 있다는 것을 증거로 영산재는 수륙재의 부분 의식이라고 하면, 영산재는 다른 작법절차라는 주장을 하는 이들을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앞에서 영산재는 법화신앙과 법화법석이 영산작법으로 발전하였다는 저간의 연구와 주장을 담았다. 여기서 영산재는 수륙대회의 부분임을 알 수 있는 ‘대회소(大會疏)’는 수륙재의 법석의식으로 별도로 설행된다는 사실과 수설대회소(修設大會所)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대회소(大會所)’는 수륙의 무차대회를 지칭하는 ‘五年一大會處’⁵⁸⁾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대회는 의문의 명칭 등으로 볼 때 ‘대수재회(大修齋會)’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수재회는 무차회로 수륙재와 무차회를 다르게 인식하려는 연구가 적지 않지만⁵⁹⁾ 수륙재가 곧 무차대회라고밖에 할 수 있다.

무차대회는 재승과 달리 도속에게도 공히 재를 대접하는 의식이다. 내용을 정리하면 영산재는 영산작법과 재승(齋僧)과 재공(齋供)이 설치되는 의례라는 것이다. 앞항의 설행 현황에서 살펴보았지만 현대 영산재에는 법석이 설행되지 않고 재승의 식당작법이 영산작법 전에 설행되고 있다. 연유에 대해 2019년 영산재 당시 도감 일운은 문화재 지정 당시 문화재적 요소를 중심으로 지정되고 당일에 재회를 봉행하게 되면서 경전 법석 설행이나 순차 등에서 어쩔 수 없이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증언하였다.

도하 영산재 또한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설행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한국불교 영산재 설행주체나 수용자들은 영산재에 법석의 유무와 당위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58) 『大唐西域記』(T51) 870b.

59) 민순의(2017), 226~227.

높지 않아 보인다. 또 재승의 식당작법이 설행되는 곳은 서울의 봉원사 영산재 외에서는 찾기가 힘들고 재공의 시왕각배도 영남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장권공으로 봉행되고 있다.⁶⁰⁾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당일에 영산재를 봉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재회의 규모 등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 칠칠재의 의식인 법석에서 발전한 영산재는 결국 오늘날의 사십구재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1980년대 이후 확립되었다고밖에 할 수 없는 시식[사십구재]의 절차 “재대령·신중작법·등계·계계·복청계·지장불공·화청·축원·관음시식” 등이 사십구재 의식⁶¹⁾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전통 영산재의 부분을 설행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V. 결어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의례의 하나이자 세계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의 구조와 설행 및 사상과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영산재를 성립기와 변용기로 분류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의를 전개한 연유는 현재도 여전히 영산재의 연원이나 방식 양태 등이 정의되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칠칠재에 설행되던 법석 가운데 법화법석이 17세기에 들어오면서 영산작법으로 발전한 영산재 성립기의 의문에는, 순수한 법석의 의궤이자 의문라고 할 수 있는 「작법절차」(1496)와 그것을 계승한 각

60) 이성운·김인목(2020), 217~222.

61) 이화옥(1995).

사찰에서 간행된 제반문의 <공양문>과 <영산작법>의 두 종류로 나뉘진다. 전자는 법석을 열기 위한 사전적인 도량엄정 이후 거불이 5종 등장하며 거불 이후 당해 경전을 염송하여 축원을 하며, 후자는 17세기 중엽부터 등장하는 <영산작법>으로 법석 가운데 법화법석의 거불만이 남아 있는 형태로 그 명칭이 작법절차에서 벗어나 <영산작법>으로 지칭되는 시기이다. 이 당시 법석의례이면서 '영산'이라는 명칭이 부여된 『영산대회작법절차』(1634)도 나타나고 있다. 이 의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청불 이전에 행하던 경전 염송이 청불 이후에 행해진다는 것이다. 아울러 괘불이운이나 설주 이운 등의 각종 이운의식을 비롯해 의례의 절차에 대한 해명 등이 갖춰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변용기의 영산재는, 『작법귀감』(1826)에서 볼 수 있듯이 법석보다 공양의식에 초점이 주어져 있는데, 삼보통칭의 공양의식에 법석을 더하기보다 기왕의 영산작법을 영산재로 변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석문의범』에서 확인이 되는데, 이를 종합하면 영산작법에 시왕각배가 더해진 의식에 '영산재'라는 명칭이 19세기 이후에 쓰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특징은 의문대로 영산재가 설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그것은 대개의 영산재가 하루 6~7시간에 설행하려다 보니 전통의 영산재 설행이 어렵게 되었고, 또 하나는 국가무형문화재 성격상 가능하면 문화적인 요소 위주로 설행되게 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영산재의 내외에는 중유사상, 공덕사상, 윤회 전생사상, 조선 숭배사상, 법화경의 경중왕사상, 구원성불 등의 법화경 사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영산재에 대한 인식으로는 도량이라는 의미의 인식에서 적잖은 차이가 있는데, 전통의 대령과 재대령의 차이 또한 전문가는 말할 것도 없고, 현장에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무언가를 성스럽게 연으로 모시는 시련에 대한 이해는 지극히 단순하고 간단하지

만 너무나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한편 영산재의 본래 의미가 칠칠재의 법석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칠칠재, 현재 사십구재라는 명칭으로 통용되다 보니 영산재는 사십구재의 의식이라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나 증언되는 현실이 되었다고 보인다.

<참고문헌>

- T 『大正新修大藏經』
- KR 朴世敏 編(1993), 『韓國佛敎儀禮資料叢書』1~4, 삼성암.
- HD 『한국불교전서』, 동국대학교출판부.
- 『高麗史』 卷89, 列傳 第2 后妃.
- 『세종실록』 9권
- 『문종실록』 1권
- 『大方等大集經』(T13).
- 『地藏菩薩本願經』(T13).
- 『梵網經』(T24).
- 『瑜伽師地論』권1(T30).
- 『大唐西域記』권1, 『屈支國』條(T51).
- 智禪 撰(1661), 『오종범음집』(HD12).
- 智還 集(1721), 『범음산보집』(HD11).
- 『금산사제반문』(KR2).
- 『보현사제반문』(KR2).
- 『오대진언집』(KR1).
- 권기종(2004), 『불교사상사연구』상, 한국불교연구원.
- 김두중, 『한국고인쇄기술사』, 탐구당.
- 덕운 편수·일응 교정(1988), 『영산의문』, 전북불교연합회.
- 법회연구원(2004), 『상용불교의식해설』, 정우서적.
- 서윤길(2006), 『한국밀교사상사』, 운주사.
- 심상현(2003), 『영산재-중요무형문화재제50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안진호 편(1935), 『석문의범』상권·하권, 만상회.
- 이성운(2011/2015), 『천수경, 의궤로 읽다』, 정우서적.
- 이화옥(1995), 『불공의식·사십구재 불교의식요집』, 삼영출판사.
- 차차석(2010), 『다시 읽는 법화경』, 조계종출판사.
- 한정섭 역주(1982), 『증주석문의범』, 법륜사.
- 혜일명조(2016), 『시련』, 민속원.
- 고상헌(2016), 「영산재의 성립과 전개 고찰」, 『문화재』 49, 국립문화재연구.

- 道端良秀(1960), 「中國佛敎と祖先崇拜」, 『佛敎史學』 第9卷 第1號, 佛敎史學會.
- 민순의(2006), 「조선 초 법화신앙과 천도의례」, 『역사민속학』 22, 역사민속학회.
- 민순의(2017), 「조선전기 수록재의 내용과 성격」, 『불교문예연구』, 동방대 불교문예연구소.
- 심상현(2011), 「영산재 성립과 작법의례에 관한 연구」, 위덕대학사학위논문.
- 沈曉燮(2004), 「조선전기 영산재 연구」, 동국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정매(2017), 「경제범패 계보연구-봉원사를 중심으로」, 『201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영산재 국제학술세미나』, 국가무형문화재제50호 영산재보존회.
- 안지훈(2019), 「서련절차에 대한 고찰」, 『동아시아불교문화』,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 연제영(2014), 「한국수륙재의 의례와 설행양상」, 고려대학사학위논문.
- 이성운(2012a),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동국대학사학위논문.
- 이성운(2012b), 「현행 수록재의 몇 가지 문제」, 『정토학연구』 18, 한국정토학회.
- 이성운(2020), 「영산재의 독립과 변용의 모범 탐색」, 『정토학연구』 33, 한국정토학회.
- 이성운·김인목(2020), 「칠칠재의 전형과 변용의 파노라라」, 『불교문예연구』 16, 동방대불교문예연구소.
- 이영숙(2003), 「조선후기 괘불탱 연구」, 동국대학교박사학위논문.
- 홍태한(2018), 「불교 관련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과 과제」, 『불교문예연구』11, 동방대 불교문예연구소.
-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2013), 성명서, <한국불교신문>, 2013.5.4.일자.
- (사)한국불교영산재보존회(2019), <제31회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을 위한 영산재 자료집>.
- https://kabc.dongguk.edu/content/list?itemId=ABC_NC

[Abstract]

The structure, practice, thoughts and perception of
Youngsanjae

Lee, Seong-woon

Dongbang Culture Grauate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This writing considers the structure, practice, thoughts and perception of Yeongasnjae(靈山齋, Vulture Peak ritual) with the discussion developed by categorizing it as the formation period and the transformation period.

Firstly, there are two types of the ritual oration(儀文) during its establishment : Jakbeob jeolcha(作法節次, the procedure for the rules of practice)(1496) which is the pure ritual oration of Beopseok(法席, Dharma seat), and Gongyangmun(供養文, the ritual program for offering) and Yeongasnjakbeop(靈山作法, the rule of practice for Vulture Peak ritual) which are Jebanmun(諸般文, the outline of Buddhist Rituals). In the former, five kinds of Geobul(舉佛, bowing and calling the name of Buddha in front of the Buddha statues) appear after cleaning and decorating Practice hall and afterwards, they chant its relevant scriptures and pray. The latter is Yeongasnjakbeop, which has appeared since the middle of the 17th century, and only Geobul of Beophwa beopseok remains and the name was also changed from Jakbeob jeolcha to Yeongasnjakbeop.

Secondly, Yeongasnjae in its transformation period, as seen in Jakbeobkwigam (The example of the rules of practice)(1826), is more focused on the offering rituals rather than Beopseok. The name of Youngsanjae is given to the ceremony in which Siwang gakbae(十王各拜, one type of the rites for The ten kings of hell) was added to Yeongasnjakbeop. Youngsanjae isn't practiced in accord-

ance with the ritual oration, but it is said to be because that it is practiced mainly on cultural aspect due to its nature as a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irdly, Yeongsanjae mainly contains the ideas of an-tarrābhava(中有, the intermediate existence), the Virtue(Guna), the reincarnation and the ancestral worship, and the idea that Saddharmapūṇḍarīka Sūtra(法華經, The Lotus Sutra) is the King of all sutras and the idea of Saddharmapūṇḍarīka Sūtra.

There ar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Practice hall and Siryeon(侍輦, the rite of serving a sedan chair).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they understands and accepts that the essence of Youngsanjae is the chanting of the Buddhist scriptures, and even the fact that Yeongsanjae is Sasibgugae(四十九齋, the ritual for the deceased in forty ninth day) seems to have been testified only in history.

Key words: Yeongasnjae(靈山齋, Vulture Peak ritual), Jakbeob jeolcha(作法節次, the procedure for the rules of practice), Yeongasnjakbeop(靈山作法, the rule of practice for Vulture Peak ritual), *Jakbeobkwigam*(*The example of the rules of practice*), *Seokmuneubeom*(釋門儀範, *The Standard manual of the Buddhist rituals*), Siwang gakbae(十王各拜, one type of the rites for The ten kings of hell), Chilchiljae(七七齋, weekly ritual for the deceased for seven weeks)

투고일 : 2021년 5월 13일
심사완료일 : 2021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 2021년 5월 25일